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배포일자		2021년 3월 2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농축산유통과	담당자	• 농촌개발팀장 박 중 우 ☎440-4381 • 담당자 이 준 만 ☎440-4382	
사 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올해 74,245필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나서
- 지난해부터 군, 구와 합동으로 추진, 올해 말까지 마무리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난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시행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, 임대,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다.
- 시는 지난해부터 2년간 군, 구와 합동으로 농지원부를 모두 확인 또는 점검하면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. 연말까지 정비해야 할 농지원부는 74,245필지로 농지면적 1,000㎡이상과, 330㎡이상의 고정식 온실, 배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등 경작 또는 재배를 하는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.
- 농지원부 정비 시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,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들에 대한 비교 분석한다. 그 결과 사실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발견되면 현장을 점검해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.
- 올해부터는 농지원부 정비 주체가 ‘농업인 주소지 지자체’에서 ‘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’로 변경됨에 따라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

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.

-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“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 원부 일제 정비는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,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연계해 농업정책 확립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 며, “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” 라고 말했다.